9. 건설적 실패의 조건(3)

1. 실패 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1) 목표 지향성(Goal-Orientation)

① 어떤 목표로 공부나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느냐를 말함
② 목표 지향성 이론
- 공부와 관련한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시작
- 최근에는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적용
- 1980년대부터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론 발전, 연구 진행
- 학생들이 공부할 때 추구하는 목표를 크게 숙달 목표(Mastery goal)와 수행 목표(Performance goal)로 구분

③ 개인의 지능에 대한 견해에 따라 목표 지향성의 유형이 결정

<숙달 목표 지향적 특성을 가진 사람>

-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숙달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음
-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
- 결과보다는 자신이 사용한 전략이나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에 관심
- 학교 공부나 직무에서 높은 성과 달성
- 학교, 직장생활에서도 적응을 잘함

<수행 목표 지향적 특성을 가진 사람>

-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과를 중시하는 수행 목표를 세움
-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
- 실패 결과가 예상되는 어려운 과제는 피하고 성공이 보장되는 쉬운 과제만을 선택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이나 학업에 임하는 경향을 보임

9. 건설적 실패의 조건(3)

2)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

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짐,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을 자기 도식(Self-Schema)이라는 틀 속에서 연구

② 자기존중감, 자기가치감 등 'self'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는 용어들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로 등장한 개념들

③ 자기존중감(Self-Esteem, 자존감)
-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, 정서적 평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
- 자존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, 성취 상황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음
- 자존감만 높다고 해서 성취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

④ 자기효능감(Self-Efficacy)
- 일을 하기 전,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
- 자기효능감을 개발한 반두라 교수는 자기효능감에서의 개인차는 개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
-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패 결과 후에 오는 반응이 건설적

2.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

1)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패 내성, 자기효능감, 내외 통제소재 간의 관련성 탐색

① 내외 통제소재 : 결과의 원인이 자기 내부에 있다고 생각
② 외적 통제소재 : 결과의 원인이 자기 외부에 있다고 생각

2) 실패 내성이 높은 유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↑
3) 내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↑